

제133주년 세계노동절

1886년 5월 1일, 하루 16시간 노동에 월 10달러 저임금에 착취당하던 노동자들이 생존권 쟁취를 위한 하루 8시간 노동을 주장하며 파업 집회를 열었다. 5월 3일 어린 소녀를 포함한 6명이 경찰의 발포로 숨졌고, 이튿날 70여 명 이상의 사상자를 낸 ‘헤이마켓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을 기리기 위해 프랑스혁명 100주년 기념일이던 1889년 7월 세계 각국 노동운동 지도자들은 국제노동자동맹(제2인터내셔널) 창립대회를 통해 5월 1일을 세계노동절로 결정하고 이듬해 1890년 5월 1일 첫 노동절(May Day)대회를 열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노동절 행사는 일제강점기인 1923년 5월 1일 조선노동총연맹의 주도로 개최, 2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노동시간 단축, 임금인상, 실업방지 등을 요구하였으며, 이후 일제의 탄압에도 매년 개최하였다. 해방 이후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는 1946년 20만 노동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노동절 행사를 개최하였으나 1957년 이승만 정권은 5월 1일 노동절을 없애고 3월 10일로 날짜마저 변경해 정권의 노동정책 홍보일로 삼았다. 1963년 박정희 정권은 노동법을 개정하여 ‘노동’이라는 단어에 내포된 계급의식을 없애고자 ‘근로자의 날’로 명칭을 변경했다.

1987~9년 노동자 대투쟁기에 대한민국의 조직된 노동자들은 노동절 회복을 선언하면서 강력한 투쟁을 벌였고 1994년 김영삼 정권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기념일을 현재의 5월 1일로 변경하였지만 ‘노동절’의 명칭은 되찾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 노동시간만 보면 OECD 가입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여전히 세계 4위, 중남미 국가를 제외하면 1위다(2021년 기준). 그만큼 노동자들은 쉬지 않고 최장 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 게다가 2023년 들어 정부는 노동조합 탄압과 각종 노동정책 개악 정책을 강행하고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의 2,100만 임금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에 직결되는 고통스런 후과로 나타날 것임이 자명하다.

5월 주요 사업 계획

일정	내용	비고
5. 9.	정례회의	집행위원회
5. 10.	한국노총 경산지부 대표자회의	위원장
5. 23.	정례회의	집행위원회
예정	제18대 대의원회 7차 임시회	대의원회
예정	2023년-1차 노사협의회	위원
예정	제도개선연구위원회	위원

전월 활동 경과

일정	내용	비고
4. 4.	정례회의	집행위원회
4. 7.	한국노총 경산지부 대표자회의	위원장
4. 11.	직원인사위원회: 포상, 전보 등	위원장 등
4. 12.	제18대 2차년도 상반기 회계감사	회계감사위원
4. 15.	대학 춘계산행대회	-
4. 18.	정례회의	집행위원회
4. 19.	직원인사위원회(서면): 포상	위원장 등
4. 22.	한국노총 경산지부 노동절 행사	위원장 등
4. 26.	노동조합 제도개선연구위원회	위원
4. 27.~28.	한국대학교노동조합연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5. 1.	제133주년 세계 노동절	노동조합
5. 2.	학원창립 77주년, 대학개교 67주년 기념식	-
5. 4.	노조회보 18-20호(2023-5월호) 발간	홍보부

정보

조합원 현황_2023. 5. 1. 기준

조합원(A)	휴직(B)	근무(A-B)	비고(전월 대비)
174명	10명	164명	-

5월 조합원 祝 생일_무순·양력

정병만	정형대	김용식	손영숙	김봉심
김중호	김명호	김상수	권영현	이근태
석기정	김현진	-	-	-

게시판

민원 신고 안내

본교에서 인권, 성희롱, 남녀차별, 괴롭힘, 갑질행위, 부당노동행위, 규정위반 등 불법적, 부당한 행위를 당하시거나 목격하신 분은 노동조합에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내 기구 및 규정의 절차에 따라 이를 처리하고자 하시는 분도 노동조합이 함께 하겠습니다.

☎ 053_850_5760~1

☎ 면담신청: 위원장(이철환), 부위원장(이승희), 여성부장(김성옥)

조합원들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조합원과 공유하고자 하는 정보, 제언, 노조 및 대학 관련 정책, 직거래 및 물품 양도 등의 의견을 주시면 본 회보에 반영해 드리겠습니다.

☎ 홍보부장(최준혁): 053_850_5155